

최근 초기불교 수행법인 위빠사나가 일반인들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간화선이 최상의 수행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는 한국 불교에서 위빠사나 등 다른 수행법이 수용될 수 있는가를 모색해 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위빠사나, 간화선과 양립가능”

인경스님, 보조사상연구원 학술발표회서 주장



보조사상연구원은 10월 26일 '불교수행전통과 간화선 수행'을 주제로 정기 학술발표회를 열었다.

보조사상연구원은 10월 26일 '불교 수행 전통과 간화선 수행'을 주제로 제14차 정기 학술 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위빠사나와 간화선'을 발표한 인경 스님(보조사상연구원 연구실장)은 "위빠사나가 초기불교의 법(法)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 간화선은 대승불교의 성(性)이란 개념에 철학적 기반을 두고 있다"고 기

본적인 차이점을 규정했다. 위빠사나가 대승으로서의 사물이나 현상, 즉 법을 관찰하고 알아봄을 강조한다면 간화선은 '경상성 불'이라는 말에서 보듯 불성이나 여래장에 기초하여 성립된 사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경 스님은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간화선과 위빠사나는 양립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이점을 먼저

살핀 것"이라며 "간화선이 위빠사나를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경 스님은 "경상이라는 말에는 대상과 사물을 따라가면서 본다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런 점에서 위빠사나와 동질성을 가진다"며 "간화선, 위빠사나를 가르치는 것보다는 우리 것으로 만들어 우리의 수행 전통

이 될 것"이라며 "간화선이 위빠사나를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경 스님은 "경상이라는 말에는 대상과 사물을 따라가면서 본다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런 점에서 위빠사나와 동질성을 가진다"며 "간화선, 위빠사나를 가르치는 것보다는 우리 것으로 만들어 우리의 수행 전통

철학적 기초, 위빠사나-법, 간화선-성품

우리 것으로 만들어 수행 전통 새롭게

을 새롭게 만들어 나갈 때 고통을 겪는 궁극적 목적에 도달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론은 위빠사나 등 다른 수행법에 대한 높은 관심과 맞물려 "간화선 수행의 문제는 무엇인가"는 데까지 이어졌다. 김진무(동국대 강사)씨는 "간화선 수행의 문제점은 눈 밝은 선지식이 없다면 무너지는 데 있다"고 말했다. '간화선 참구의 실제'를 발표한 김영욱(가산불교문화연구원 책임 연구원)씨는 "처음과 끝만 있고 중간이 없

는 게 간화선이다. 이럴 때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눈 밝은 종사의 역할"이라며 "태고보우도 회두를 타파했다더라도 눈 밝은 종사를 찾아 인정받기 전에는 그것을 드러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간화선의 성립 배경'을 발표한 김호귀(동국대 강사)씨는 "수행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깨달음 자체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라며 "깨달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보니 깨달음을 대한 막연한 환상과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방룡(전남대 강사)씨는 "결국 수행과 수행의 문제인데, 현재의 수행 방법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으로는 나아가지 못했다. 학계에서 풀어야 할 고민거리 하나를 던져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yj@buddhania.com



조선 불화의 조형세계 ④

에너지 내뿜는 17세기 불화

조선 오백년 역사의 허리쯤에 우리 민족은 무려 네 차례의 전쟁을 겪었다. 1592년 임진왜란, 1597년 정유재란, 1627년 정묘호란, 1636년 병자호란. 문제는 전쟁 뒤의 참혹한 상황이다. 미국과 혹독한 전쟁을 치른 아프가니스탄, 그 나라의 선수들은 지난번 부산 아시안 게임에 참가하는데 비행기 샅을 아끼려고 배를 여러 번 갈아타는 수고로움을 겪어야 했다. 조선시대도 예외가 아니다. 연이어 전쟁을 겪은 17세기 조선 경제사정은 피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시기의 불교계

역사자들은 18세기를 조선의 르네상스라 부른다. 특히 정조가 통치한 18세기 후반을 조선문화의 절정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불교미술의 잣대로 본다면 18세기보다는 오히려 17세기가 불교미술의 르네상스에 해당한다. 17세기 불교미술은 스케일이 크고 역동적인 생동감으로 가득 차 불교를 중흥시키려는 강렬한 의지가 곳곳에 엿보인다. 18세기가 되면 앞세기에 보여준 에너지의 분출은 잦아들고 무언가 풍요로움에 안주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렇다면 17세기 불교미술을 중흥시키



화엄사괘불(보물 301호). 1663년 벽암 각성에 의하여 조성된 괘불이다. 세로 1,008cm, 가로 731cm.

킨 원동력은 무엇일까? 그것은 외세의 침략에 항거한 승병들의 활약상이다. 임진왜란에 휴정과 유정이 전공을 세웠고 병자호란에는 각성과 명조가 큰 역할을 해냈다. 전쟁이 끝난 후 각성(호는 벽암)은 완주 송광사, 화엄사, 쌍계사 등 여러 사찰의 재건을 주도하였다. 특히 화엄사에서 볼 수 있는 웅장한 전각들은 그와 그의 제자인 성룡이 건립하였다. 1623년 각성이 화엄사를 개수하려고 하자 많은 시주자들이 거리를 메워 어느새 총림을 이루었다는 기록이 당시의 상황을 전하고 있다. 각성에

원효 주석서 번역작업 해석학적 구조 감안을

버스웰 교수, 국제원효학회 학술회의 발표



원효를 비롯한 전통적인 주석자들은 통일되고 일관된 경전의 해석을 위해 나름대로의 해석학적인 구조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주석서를 번역하는 사람은 그 구조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동국대에서 열리는 제2회 국제원

효학회 학술회의에서 '원효와 한국 불교 문헌의 주석학'을 발표할 로버트 버스웰(사진) 미국 UCLA 교수는 원효의 <금강삼매경론> 분석을 통해 한국 불교 문헌의 주석 구조를 밝힐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버스웰 교수는 미리 공개한 발표문에서 "원효를 비롯한 동아시아 주석가들은 많은 경전들을 전체적 틀 속에 엮어놓는

해석학적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며 "그들은 수많은 경전들이 마치 불교라는 하나의 큰 천 조각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조각과도 같은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교 주석학자들에게 있어 주석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부처님의 통찰력을 당대의 것으로 살아나게 하며, 불교 경전에 계속된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었다"고 밝힌 버스웰 교수는 "동일한 맥락에서 번역자로서의 우리의 역할은 원효의 통찰

고려불화, 西域서 직접 영향

문명대 교수, 중국 거처지 않고 교류



고려불화의 뛰어난 아름다움과 독특한 특징은 어디에서 유래했을까? 10월 26일 열린 한국미술사학회 제8회 전국미술사학대회에서 문명대(사진) 교수(동국대)는 고려불화의 이미티레이드, 수월관음도, 두건지장보살 등에 나타나는 특징이 서역불화를 직접적으로 수용한 결과라는 주장을 폈다.

이날 '고려불화의 국제성과 대외 교류

역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고려와 서역의 직접적인 교류에 의한 전파라는 것을 보다 분명히 보여 준다"는 것이다. 문 교수는 이어 고려불화에 나타난 구불구불한 선 역시 툴툴무늬에서 나온 것이라 하여 '유수문(疏水紋)'이라 부르고 있지만 서역 일대의 사막에서 볼 수 있는, 모래가 바람에 날려 생기는 모래무늬, 즉 파상문(波狀紋)에서 나왔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송 원대 불화와 고려 불화의 관계에 대해서도 문 교수는 "수용적인 측면에서

두건쓴 지장 보살 · 파상紋 등이 증거

관계를 발표한 문 교수는 "고려사" 등의 문헌 자료를 보면 고려와 서역의 여러 나라들이 송이나 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교류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현재 남아 있는 작품들을 비교해 봐도 중국이 아니라 서역불화의 관계에서 나타난 불화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두건을 쓴 지장보살은 중국 본토에서는 거의 조성되지 않고 우리 나라의 서

역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고려와 서역의 직접적인 교류에 의한 전파라는 것을 보다 분명히 보여 준다"는 것이다. 문 교수는 이어 고려불화에 나타난 구불구불한 선 역시 툴툴무늬에서 나온 것이라 하여 '유수문(疏水紋)'이라 부르고 있지만 서역 일대의 사막에서 볼 수 있는, 모래가 바람에 날려 생기는 모래무늬, 즉 파상문(波狀紋)에서 나왔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송나라 때도 고려의 화원들이 중국에 계속 진출했고, 원나라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다. 문 교수는 "이런 교류를 통해 중국 그림을 수용하기도 했지만 중국 그림에도 자연스럽게 자극을 주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큰 스케일 사찰 · 괘불 불보살 강렬한 눈빛 壬亂 등 외침 항거 승병활약이 원동력

에서는 사찰을 재건하는 움직임이 지적처럼 일어난다. 법주사 팔상전, 금강산 미륵전과 대적광전, 화엄사 대웅전과 각각전 등 현재 남아있는 조선시대 불전 가운데 거대한 것들은 바로 이 시기에 세워진 것이다. 불전을 크게 세우니 불화와 불상도 덩달아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거대한 괘불이 성행한 시기도 바로 17세기 중엽 이후이다. 이 시기의 불화를 보면 색채가 밝고 명랑하다. 혹독한 전쟁을 치른 시기의 불화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전혀 어두운 구석을 찾아볼 수가 없다. 오색구름이 찬란한 밝은 색조가 화면을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재건된 화엄사의 대역사(役畵)는 1653년에 조성된 영산회상도 괘불에까지 미쳤다. 영산회상도는 석가모니불이 영취산에서 설법하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이다. 보현보살과 협시보살이 좌우에 앉아 계시고 그 아래 사천왕이 호위하며 십대제자와 나머지 사천왕이 서있다. 이 괘불 속에 등장하는 여러 상들의 눈빛을 눈여겨보면 매우 강렬함을 느낄 수 있다. 마치 각성 스님을 비롯한 불교신도들의 강렬한 열망이 영산회상도에 모여든 권속들의 눈빛 속에 활활 타오르는 듯 하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교수

제주 약천사 주지 이·취임식 및 제 8회 경로 대잔치

기록한 상보에 귀의합니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늘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많은 불자들이 물심양면으로 성원해주신 정성으로 날이 밝건하고 있는 저희 약천사는 그동안 주지로 계시면서 사찰을 중심으로 한 계주문화 역량을 배가시키는데 노력 해주신 주지 성공스님 후임으로 배민스님의 망상좌이시며 재방에서 수행정진 해오시던 원조스님께서 새로운 주지로 취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날 지역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로표친의 높은 가르침을 더욱 확고히 하고자 제 8회 경로대잔치를 마련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셔서 함께 자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 순

◆ 11:00 약천사 주지 이·취임식

- 삼귀의례
- 찬불가
- 반야심경
- 약천사 연혁소개
- 내빈소개
- 헌향 헌화
- 이 임 사
- 취 임 사
- 축 사
- 청 법 가
- 법 어
- 축 가
- 사홍서원

◆ 12:30 제 8회 약천사 경로 대잔치

- ◆ 점심공양
- ◆ 공연
- ◆ 동별 노래자랑
- ◆ 시상식

- ◆ 일 시 : 2002년 11월 12일 화요일 오전 11:00
- ◆ 경로잔치 : 주지 이·취임식 이후 경로잔치를 합니다.
- ◆ 장 소 : 약천사 큰법당
- ◆ 전 화 : 064)738-5000 / 팩스 064)738-5022
- ◆ 홈페이지 : www.yakchunsa.org

大韓佛敎 曹溪宗

藥泉寺 會主 慧印

新任住持 圓照 前任住持 性空

합 장